



## 미 증시, 지표 호조, 실적 기대감 등으로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1 일(목) 미국 증시는 덜 비둘기파적이었던 1 월 FOMC 여파, 뉴욕뱅크프발 지역은행 유동성 우려에도, 주가 기반영 인식 속 1 월 ISM 제조업 PMI 호조, 4 분기 단위노동비용 하락, M7 실적 기대감 재부각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0%, S&P500 +1.3%, 나스닥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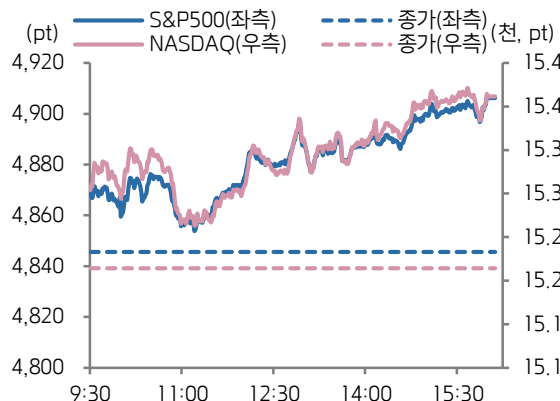
아마존(+2.9%)은 4 분기 웹서비스 매출 호조에 따른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간외에서 7% 대 내외 급등 중. 메타(+1.2%)도 비용절감 등에 따른 이익 개선, 월간 활성자 및 이용자당 평균수익 증가 등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사상 처음 분기배당도 발표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14%대 내외 급등 중. 반면, 애플(+1.3%)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우려가 부각되면 시간외에서 1%대 약세 중.

미국의 1 월 ISM 제조업 PMI 는 49.1 로 전월(47.1) 및 컨센(47.1)을 상회. 신규주문(52.5, 컨센 48.2%), 고용(47.1, 컨센 47.0) 등 주요 세부항목들이 모두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견인.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4 만건으로 전주(21.5 만건) 및 컨센(21.3 만건)을 모두 상회. 4 분기 단위 노동비용은 0.5%(QoQ)로 전분기(-1.1%)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컨센(1.3%)은 하회하면서 예상보다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

영란은행(BOE)은 2 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5.25%로 5 개월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 성명서 상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올해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 다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완전히 내려서고 그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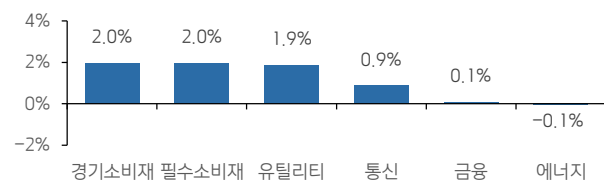
한국의 1 월 수출은 18.0%(YoY)로 전월(5.0%)에 비해 증가폭을 크게 확대했으며, 컨센(17.6%)도 상회하는 호조세를 기록. 반도체(+56.2%), 자동차(+24.8%), 기계(+14.5%), 가전(+14.2%) 등 주력 품목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수출 호조세를 견인. 지역 별로는 미국(+26.9%), EU(+5.2%), 아세안(+5.8%) 등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했으며, 중국(+16.1%)도 '22년 5 월 이후 20 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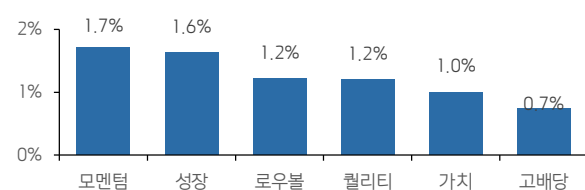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코스피                                  | 2,542.46  | +1.82% | USD/KRW   | 1,331.77 | -0.22% |
| 코스피 200                              | 342.41    | +1.83% | 달러 지수     | 103.08   | -0.18% |
| 코스닥                                  | 798.73    | -0.06% | EUR/USD   | 1.09     | +0.02% |
| 코스닥 150                              | 1,247.57  | +0.47% | USD/CNH   | 7.19     | +0.01% |
| S&P500                               | 4,906.19  | +1.25% | USD/JPY   | 146.49   | +0.04% |
| NASDAQ                               | 15,361.64 | +1.3%  | 채권시장      |          |        |
| 다우                                   | 38,519.84 | +0.97% | 국고채 3년    | 3.270    | +1.2bp |
| VIX                                  | 13.88     | -3.28% | 국고채 10년   | 3.345    | +0bp   |
| 러셀 2000                              | 1,974.42  | +1.39% | 미국 국채 2년  | 4.202    | -0.4bp |
| 필라. 반도체                              | 4,280.49  | +0.46% | 미국 국채 10년 | 3.880    | -3.2bp |
| 다우 운송                                | 15,645.35 | +0.83% | 미국 국채 30년 | 4.118    | -4.8bp |
| 유럽, ETFs                             |           |        | 원자재 시장    |          |        |
| Eurostoxx50                          | 4,638.60  | -0.21% | WTI       | 73.82    | -2.68% |
| MSCI 전세계 지수                          | 730.84    | -0.92% | 브렌트유      | 78.93    | -3.4%  |
| MSCI DM 지수                           | 3,205.32  | -0.97% | 금         | 2071.1   | +0.18% |
| MSCI EM 지수                           | 975.80    | -0.49% | 은         | 23.24    | +0.29% |
| MSCI 한국 ETF                          | 61.30     | +3.08% | 구리        | 385.35   | -1.34% |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        |           |          |        |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br>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3.0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9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7.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예상보다 덜 비둘기파적인 1 월 FOMC 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br>2. M7 실적 부진 이슈의 국내 증시 기반영 가능성<br>3. 1 월 한국 수출 실적  |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발표된 미 경제지표의 경우 고용둔화 및 제조업지수 호조 조합으로 증시는 반등에 성공, 경기 연착륙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였다고 판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4만건(예상 21.3만건, 전주 21.5만건)으로 둔화. 1월 ISM 제조업 PMI는 49.1(예상 47.2, 전월 47.4)로 예상치 모두 상회하며 긍정적.

1 일(목) 국내 증시는 높아진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알파벳, MS 실적 전망에 빅테크 약세, 매파적이었던 FOMC 영향으로 인한 미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저 PBR 주로 외국인과 기관 자금 쏠림 현상으로 강세 보이며 차별화 (KOSPI +1.82%, KOSDAQ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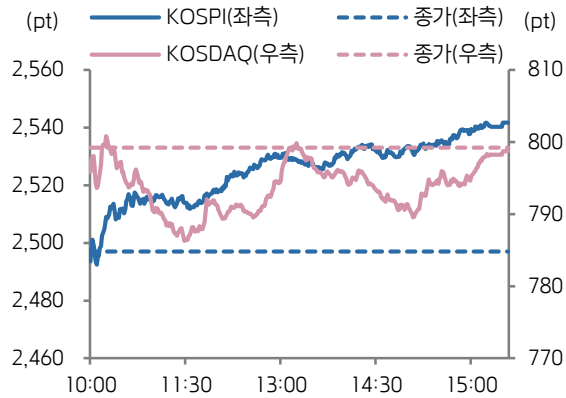
전일 업종 수익률 상위 보험(9.1%), 증권(5.7%), 금융(5.6%), 유통(4.5%) 기록, 종목단에서는 하나금융지주(8.8%), KB 금융(8.3%), 삼성물산(7.8%), 현대차(6.9%), 현대모비스(4.5%), 신한지주(4.5%) 등 시총 20 조 이상 대형주 급등. 기관의 매수세에 더해 외국인 현물 1 조원, 선물 5,000 억원 자금 추가 유입되며 시세를 만들어낸 것이 저 PBR 장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판단.

이번주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수 종목 상위는 기아, 삼성물산,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등.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2023 년 12 월 7 일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이 지분 0.62%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 배분 최적화 및 주주환원 요구 등 주주 제안한 바 있어 보유한 자사주 소각 기대감 존재. 해당 펀드는 작년 10 월 일본 케이세이 철도에 비핵심자산 매각 등 주주제안을 진행, 해당 기업 주가는 현재까지 30% 넘게 상승한 사례.

현재 검토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가치를 개선한 우수 상장사 100 곳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고려. 일본의 기업경영 변혁 촉진책 발표 이후 거래소의 적극적인 대응에 시차를 두고 상승한 일본 증시 사례. 국내 적용 시 핵심은 상법 개정 없이 1) 거래소가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 공시가 강제성을 가지거나, 2) 새롭게 구성하는 상장 지수가 PBR, ROE 등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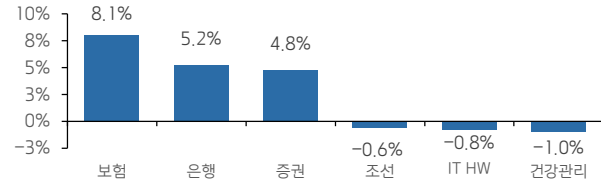
2 월은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없어 매크로 이벤트 영향력은 완화되고 다음주는 빅테크 실적 이벤트 역시 부재한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에도 저 PBR 주들의 강세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여력 존재. 현 코스피 지수 수준에서 PBR 1 배 달성시 2,900pt, 상승여력 약 15%.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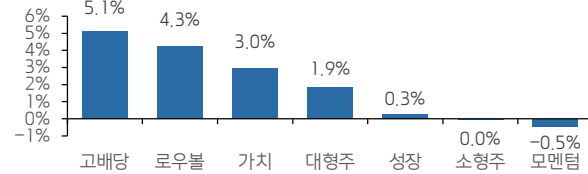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